

20세기 후반 패션에 나타난 성 개념 변화추이 분석

안 소 현 · 이 경 희

부산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The Analysis of the Transitional Aspect of Gender expressed in the Later 20th Century Fashion

Ahn-So Hyun · Lee-Kyoung He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Pusan National University
(2000. 1. 28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eply understand the transitional concept of gender expressed in the later 20th century fashion through analyzing of various literature. Gender is constructed in the context of social and culture different than sex which is inherent difference between man and woman. Thus the concept of gender can be changed according to change of social and culture.

There are imposing changes in gender since 60's owing to various factors; namely, feminism, subculture, deconstruction, development of technology, market economy, changing sex roles, etc. Especially in the 60's to 70's, as radical changes were took place, gender became vague more and more. Finally these days there is no fixed gender. In terms of meaning, there may be a number of genders—since there are as many meanings of sex as there are people who have thought about it. That is, sex is, gender means. Sex exists in itself, and is sublimely indifferent to what humans think of it. However gender is all the meanings we assign to sex. In accordance with this phenomena, people don't mind their sexes with appearance. There is only different disposition and taste.

Key words: gender, transitional aspect, changes of social and culture;
성 개념, 변화추이, 사회·문화적 변화

I. 서 론

의복태도와 그에 따른 의복선택은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밀접하게 관련된 인지적, 행동적 현상으로¹⁾ 의복관련 행동은 개인적 차원 뿐 아니라 시대정신 및 문화를 반영한다. 즉 의복은 시대를 반영하는 표 현문화²⁾로서 개인의 문화체계에 대한 관계를 나타

내는 상징적 은유이기 때문에 문화내의 가치관, 상호관계들, 의미 등을 나타내고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³⁾. 따라서 특정 시기의 의복과 관련된 여러 현상들은 시대상황과 문화적 맥락 하에서 총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90년대 중반 이후 패션의 중요한 흐름으로 등장한 '젠더리스(genderless)'는 21세기 사회는 인종과 성, 연령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개될

것이라는 분석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성 개념과 관련한 새로운 관점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요구된다. 포스트모더니즘, 페미니즘, 바이섹슈얼리티(bisexuality) 등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1, 9-15)}에서의 의복에서의 양성화 경향이 연구되고 있으나 성 개념의 변화와 의복과의 관련을 체계적으로 논의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 고찰을 중심으로 20세기 후반에 있어 성 개념의 변화양상을 시대정신 및 문화현상과 관련지어 파악해 보고 성 개념의 변화가 의복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났는지 고찰해 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II. 성 개념(Gender) 변화 요인

'gender(masculine: feminine)'란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내는 'sex(male: female)'와는 달리 사회적으로 만들어지고 문화적으로 정의되는 남녀간의 사회적 의미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성역할 등과 관련된다²⁾. 성역할 개념(genderlogy)은 개인이 성과 관련된 전통적인 고정관념을 수용하는 정도로서 전통적 성역할 개념과 이를 부정하는 평등한 성역할 개념 차원 모두를 포함할 수 있는데 성역할 차이는 의복 및 외모의 차이로 나타나기 때문에 남녀간의 성역할 차이가 줄어들면 의복에서도 남녀간의 성차가 줄어들게 된다⁴⁾.

개인의 성적체감은 사회가 각 성에 적절하다고 규정하는 태도, 특성, 흥미 등을 동일시하는 성역할 정체감을 바탕으로 형성되는데⁵⁾ Myra Jehlen은 성 개념이 사회적으로 구축된 것이라 할지라도 생물학적 성 차와의 특수한 관계 하에서 사회적으로 완성된다고 하였다⁶⁾. 즉 신체적인 것 또는 생물학적인 것에는 인간행위에 제한을 가하는 다양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성과 생물학적 성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어렵고, 이는 성별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장벽이 되고 있다⁷⁾. 그러나 남녀의 실제적 차이를 가져오는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자연적 성 차이 섹스보다는 성역할 사회화과정⁸⁾에 의한 성 개념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20세기 후반의 문화현상을 대변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은 문화적 다원주의를 표방함으로써 모든 양식과 주제에 대한 열린 태도를 견지하여 다양한 요소를 한 단위 안에 혼합¹²⁾한다. 이러한 맥락은 양면가치를 증가시키게¹⁶⁾ 되는데 성 개념과 관련된 양면가치의 표출은 남성적인 이미지와 여성적인 이미지의 요소를 혼합하여 표현하는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¹³⁾. 즉 기존의 성 고정관념에서는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가 대립구조 속에 놓여 있었지만 오늘날은 남녀간의 힘과 속도의 차이의 중요성이 감소¹⁴⁾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당면시되면서 성역할 고정관념의 존재이유가 사라짐에 따라 한쪽 성에 바람직한 모든 특성이 다른 성에게도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져 양성의 특성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성 개념에 변화를 초래한 영향 요인을 페미니즘, 하위문화, 해체주의, 테크놀로지의 발달, 후기자본주의 하의 시장경제와 관련시켜 살펴 보고자 하는데 이들 요인들은 독자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유기적으로 상호 관련되어 있다.

1. 페미니즘

페미니즘은 여권신장, 여성해방운동, 남녀평등주의 등 여성의 권익을 찾고 성차별을 타파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용어¹²⁾로 그 시초는 Mary Wollstonecraft가 <여권옹호론>을 발표한 1792년²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 후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계몽정신과 자유평등사상에 입각한 인본주의적 페미니즘으로 발전해왔으나 여성에게 억압을 가하는 구조적 모순자체를 진단하고 바꾸어야 한다는 인식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¹¹⁾. 20세기에 들어와 1차 대전으로 인한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1913년의 국제페미니즘대회¹²⁾, 1920년의 미국의 여성참정권승인¹⁴⁾ 등으로 여성들의 지위가 상승하는 듯 하였으나 20년대에 초래된 여권운동의 붕괴, 30년대의 대공황과 급진주의사상, 2차대전 이후의 노동계상황, 50년대의 '남편이나 자녀에 대한 무조건적 헌신'이라는 여성역할에 관한 보수주의¹⁴⁾ 등으로 인해 여권운동은 후퇴가 불가피하였다¹²⁾.

그러나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수명연장, 육아기

간의 단축 등으로 라이프사이클에 변화가 생겨 가정생활만으로 만족할 수 없게 된 중산층 여성들의 자각¹⁴⁾과 함께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반핵운동, 인종운동, 녹색운동, 히피 등과 같은 저항문화의 출현으로 페미니즘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어¹⁵⁾ 타자로서의 새로운 가치를 주장하게 된다. 70년대까지의 페미니즘운동은 성적 차별의 권력관계적 측면에 주목하는 유토피적 페미니즘과 본질적인 성적 차별을 주장하는 급진적 페미니즘으로 대별된다¹⁶⁾. 유토피적 페미니즘은 여성성을 역사적 변화에 따라 변하는 비고정적인 성질로 간주하여 여성과 남성의 동질성 혹은 차별성에 초점을 둔 논의자체를 거부한다¹⁷⁾. 생리적 성에 부과된 사회, 문화, 심리적 경험의 축적이 성을 규정한다는 유토피적 성 이론은 성의 문제를 남성에게까지 확장하여 남성도 사회적 구조물의 피해자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개방된 성 인식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반면 급진적 페미니즘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최소화시킨 양성문화의 지향으로부터 남성문화를 여성문화로 대치시키는 것까지 아주 다양한 방식을 제안¹⁸⁾하였으나 여성의 생리학적 본질을 강조함으로써 남성의 힘을 인정하는 모순을 낳았다. 70년대 여성임을 찬양하는 에로티시즘은 이러한 급진적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성적 차별의식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60~70년대 페미니즘은 성의 관계가 힘의 관계임을 폭로하거나 남녀평등을 주창함으로써 눈앞의 권익만을 추구했을 뿐 성차별의 구조적 모순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이에 비해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구조주의 사상을 수용한 1980년대의 포스트모던페미니즘은 구조적 모순과 타자로서의 여성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설득력을 얻게 되어¹⁹⁾ 페미니즘의 새 시대를 연다. 기존의 질서와 체제를 의문시하고 저항하며 서구문화를 주도해온 남성중심의 이성주의적 담론의 해체²⁰⁾를 추구하는 포스트모던페미니즘은 평등의 추구보다는 차이에 주목하였는데 이는 다시 차이를 옹호하는 본질주의와 차이를 무효화시키고자 하는 해체주의로 구별된다²¹⁾. 본질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차이에 가치를 부여하기 위하여 여성성을 대두시키고 여성특유의 경험에 의거하여 차이를 개념

화한다. 반면 해체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남녀이분법을 해체함으로써 성 차를 무효화하고자 대립항을 이루는 각 항목의 정체성을 거부하고 자연적 성으로부터 문화적 성으로 시선을 돌려 남녀 공동의 인간해방, 주체성의 해방운동으로 전환해 나간다²²⁾. 주성을 선천적으로 주어진 다른 존재들의 대립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관계로 봄으로서 차이가 본질적이 아님을 주장²³⁾한다. 이는 성차별 자체보다는 그 차이를 만드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중시하는 것으로 1970년대 에로티시즘을 통해 성차별주의를 찬양하던 페미니즘과는 달리 사물을 극단적인 단일의 대립구도 속에 집어넣는 태도를 거부하는 양성성을 통해 성차별주의의 극복을 시도²⁴⁾하는 것이다. 이때의 페미니즘 운동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권력 그 자체를 해체시키고 남녀 모두를 위한 공동체사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남성이나 여성의 양자택일을 할 필요가 없는 인간으로서 각자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새로운 가치를 추구한다²⁵⁾.

이러한 페미니즘의 전개과정은 여성의 사회진출과 맞물려 의복의 양성화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다.

2. 하위문화

하위문화는 원래 모더니즘시대에 대중소비문화의 변경에서 꽃핀 저항스타일의 일종으로 반문화의 중심을 형성한 아방가르드 운동이었으나 영향력 있는 세력을 형성하지는 못한 주변부 문화였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시대에 접어들면서 하위문화는 작지만 획일성을 거부하는 정신적 자유와 자기정체성으로 충만한 다양한 소수의 목소리로서 주류의 일부가 되었다²⁶⁾. 이에 따라 지배문화에 대한 저항을 근본정신으로 유행자체를 거부하던 하위문화스타일은 80년대 이후에는 하나의 패션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 후 형성된 테디보이즈, 모즈, 히피 등 많은 청소년 하위문화집단들에서 남성의 성 관념에 대한 부정이 시도되었는데 이는 핑크에 이르러 가장 강력하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가시화되었고²⁷⁾ 70년대 중반 이후 뉴웨이브 패션이 주류를 이루면서 글리터 락커들이 남녀 복식을 자유롭게 자

신의 개성에 따라 혼합하여 입음으로서 앤드로지너스 룩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에 등장한 모즈는 절제된 외모에 세세한 디테일까지 신경 쓰는 하류층의 대표적인 덴디들로서 초기에는 남성에 국한된 하위문화였지만 여성에게도 급속히 번져 유니섹스 스타일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²¹⁾. 60년대 중반 중산층 베이비붐세대가 기성사회의 규범이나 관습에 반발함으로써 나타난 히피는 다양한 대중문화의 통합적 형태로서²²⁾ 그들의 자유로운 성 의식은 남녀가 같은 복식으로 일체화된 공동체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자극제 역할을 하였고 장발과 블루진에 대한 애호는 외모의 혼돈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⁹⁾. 70년대 후반 백인청소년들의 저항적 하위문화인 펑크는 풍요에 대한 약속과 실업이 만연한 현실의 절망적 상황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데 남녀구별 없이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감을 비상식적인 행위, 지나친 메이크업, 괴상한 의상, 독특한 머리염색과 스타일 등을 통해 나타냄으로서 기존의 성 관념을 전면적으로 부정²³⁾하고 지배적인 부르주아 가치에 대해 의식적인 대립을 표현하였다²⁴⁾. 한편 여성운동가들은 60년대 초에는 미니스커트와 이집트헤어스타일을, 60년대 말에는 학생운동의 반문화적 룩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반사회적·반문화적 의상을 통해 기성문화에 반항하는 젊은이들의 하위문화스타일을 형성하였다. 이들이 착용하던 바지류, 슬로건이 적힌 티셔츠, 자루 같은 진, 솔더백, 낮은 사각형의 구두 등은 캐주얼 아이템으로 상업화되면서²⁵⁾ 의복에서의 성 차를 줄이는데 기여하였다.

Vivienne Westwood의 거리 패션과 Rei Kawakubo 등의 인체를 무시하는 전위적인 해체패션도 부르주아 문화에 대한 비판정신을 표현함과 동시에 그에 대신하는 문화적 민주주의와 풍부한 감성을 패션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문화라 할 수 있다¹⁰⁾. 이들의 작품 특히 일본 디자이너들의 해체패션에서 나타나는 반여성성¹⁴⁾은 성의 모호함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서구사회에서는 1980년대에 이르러 동성애를 정신질환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게 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적 맥락에 따라 동성애자를 하

나의 하위문화집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¹¹⁾. 동성애집단에서의 의복과 외모는 파트너 선택이나 집단내 의사소통의 중요 수단으로 사용되는데, 이들의 외모는 새로운 유행으로 창조되어 일반 소비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²⁶⁾.

이처럼 각종 하위문화는 기성사회의 관습을 거부하는 수단으로 기존의 성 개념에 따른 의복을 부정하는 방법을 주로 채택하였는데 이들의 독특한 문화와 복식은 다른 계층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성 개념 변화에 일조를 하였다.

3. 해체주의

1960년대에 널리 확산된 구조주의(Structuralism)는 과학성을 바탕으로 법칙발견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이원적 개념을 설정한다. 이에 따라 자아나 주체, 개인사유를 무시한 채 모든 것을 객관화시키고 개체에 대한 특권을 구조에 부여함으로써 전체주의적 독선을 나타내는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러한 한계상황을 극복하고자 나타난 것이 1966년 Derrida에 의해 주창된 '해체주의'⁹⁾였다. Derrida의 해체는 모든 텍스트들에 대한 해체로서 전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모든 것을 뒤집어엎고 기존개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¹⁷⁾ '개체의 존엄성과 자유', '소외된 타자', '차이' 등을 인정하여 기존의 이성중심주의에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인식의 장을 열게 하였다¹⁸⁾.

즉 해체주의는 남성/여성, 정신/육체, 문화/자연, 이성/감성 등 이분법적 대립을 근본개념으로 하는 로고스중심주의적 형이상학¹⁹⁾을 부정함으로써 새로운 창조하는 것이다. 타자를 수용하여 다양성을 추구하는 지적탐색인 해체주의에서는 절대적 논리란 있을 수 없고 끊임없이 와해되며 자리바꿈을 하므로²⁰⁾ 남녀라는 이분법은 남자 속의 여자, 여자 속의 남자라는 내적 차이로 해체될 수 있다. 이처럼 문화적 범주들의 내적 긴장 또는 양면가치를 억제하지 않고 그대로 표출하기 때문에 남성, 여성이라는 성의 하위문화로 패션을 나누는 이분법이 사라지고 양쪽 성을 공유하거나 이성의 복식을 착용한 양성적 이미지의 복식 및 성을 배제한 중성적 이미지의 복식¹⁹⁾이 나타나게 된다.

즉 해체주의는 복식에서 남성 대 여성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해체시키고 상호텍스트를 병행 인용함으로써 기존 사회규범으로서의 이분법적 표현방법을 무너뜨리고 이성적·합리적인 면보다는 감각적 자극과 다양한 즐거움을 추구함으로써⁹⁾ 기존의 성 고정관념과 이와 관련된 의복 행동이 변화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였다.

4. 테크놀로지의 발달

50년 전에 비해 정자수가 반으로 줄었다는 1995년의 의학보고¹⁰⁾ 이후 1997년에는 스코틀랜드의 로슬린 연구소에서 핵 전이를 이용하여 복제 양 'Dolly'를 탄생시켰¹¹⁾으로서 복제인간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 현재는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 인간복제가 금지¹²⁾되고 있지만 미래에는 여성들이 남성의 도움 없이도 아기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으로¹³⁾ 여겨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남성들의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해져 결국 남성들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미래에 더 강력한 파워를 행사할 것으로 여겨지는 여성들과 협동을 해야만 할 입장에 처해 있다¹⁴⁾. 또한 생활전반에 걸쳐 기계화가 진행됨으로서 더 이상 남녀간의 육체적 힘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게 되고¹⁵⁾ 여성의 사회진출이 일반화되어감으로써 남녀간의 성역할 구분이 무의미해지고 있다. 더구나 컴퓨터의 보급이 확대되고 테크놀로지가 발달함에 따라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반대 성으로의 변환을 경험해 볼 수 있는 1970년 이후 출생자에게 있어 성 차란 결코 분명한 것이 아니다¹⁶⁾.

한편 Hebdige는 하위문화집단의 저항을 규제 혹은 지배에 대한 인간적 자유와 창조성의 주장으로 간주¹⁷⁾하지만 그러한 저항이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해 형성된 지배적인 매스미디어 혹은 문화산업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¹⁸⁾. 각종 매체를 이용한 문화산업은 다양한 하위문화 요소들을 끊임없이 받아들여 상품화하는데 하위문화 스타일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중화됨으로서 처음에 지녔던 저항적·의식적 의미는 사라지거나 약화되면서 표준화되어 지배적 문화로 통합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¹⁹⁾. 특히 90년대 이후 VTR, 위성방송,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의 비약적 발달로 인해 전통적

인 성 개념이나 성역할에서 벗어난 하위문화집단의 인물을 묘사하는 영화와 성 개념이 파괴된 의복형태를 보여주는 락커나 패션쇼에 익숙해 있는 이들에게 있어 성 개념이 과거와 달리 모호하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의복을 통해 정치적 호소를 하겠다는 개념은 점차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이처럼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해 초래된 생활과 사고방식의 전환은 특정 성(sex)과 관련한 고정관념을 거부하고 모호한 성 개념의 당위성을 생성해냄으로서 패션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

5. 후기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위문화는 비판적 문화운동이지만 다국적 자본이 지배하는 패션산업의 이윤논리와 결합할 때 사뭇 그 본래의 의미는 굴절, 변용 되어 퇴색되기도 한다²⁰⁾. 따라서 현실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해 놓지 않은 문화논리 자체만은 실제의 패션에 대한 일면적 분석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후기자본주의라는 사회경제적 배경 하에서 성립하는 문화논리²¹⁾인데 후기자본주의 사회는 소비를 생산보다 중시하므로 관심의 대상이 본질적인 것으로부터 비본질적인 것으로 바뀌게 된다²²⁾. 대개의 경우 비본질적인 것은 감성적인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교환가치가 사용가치를 앞지르게²³⁾ 되는 것이다.

60년대와 70년대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가능해지고 매스미디어가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생활방식이 점차 획일화되는 대중소비사회가 도래하였다. 이에 따라 타인과 자신을 구별하고자 하는 욕구도 증가되어 하위문화요소였던 양성성이 획일화된 패션을 거부하며 개성과 자유를 추구하려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²⁴⁾. 즉 다품종소량생산을 통한 이윤추구를 위해 상품이 미지의 끊임없는 교체를 필요로 하는 후기자본주의와 패션의 절충주의에 의해 개개인의 다양한 개성을 표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다국적 자본의 이윤논리에 의해 스타일과 형태는 그 내용을 박탈당하고 단지 소비자를 유혹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강요당하고 있다²⁵⁾.

이런 현상은 특히 80년대 후반부터 심화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디자이너들의 작품은 특별한 깊이가 없고 독자적인 내적 견해가 요구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들에 표현된 양성적 요소는 단지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소비자들도 사용가치가 앞서던 과거와는 달리 미적 고려나 단순한 재미, 호기심, 새로움 그 자체에 더욱 끌리게 됨에 따라 어떤 정치적 의도 없이도 양성적 요소를 즐기게 되었다. 즉 시장경제는 어떤 필요와 새로움에 대한 욕망, 끝없는 차별성과 즉각적 만족 등을 끊임없이 창조하도록 요구하는데 패션은 이를 표출할 수 있는 무엇보다도 좋은 상품¹⁰⁾으로 이를 통해 기존의 성 개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성 개념 변화요인을 <표 1>에 정리하였

고 이들 변화요인간 구조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1]에 제시하였는데 60~70년대에는 페미니즘과 하위문화의 영향력이 보다 컸던 반면 20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후기자본주의 경제논리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III. 20세기 후반 패션에 나타난 성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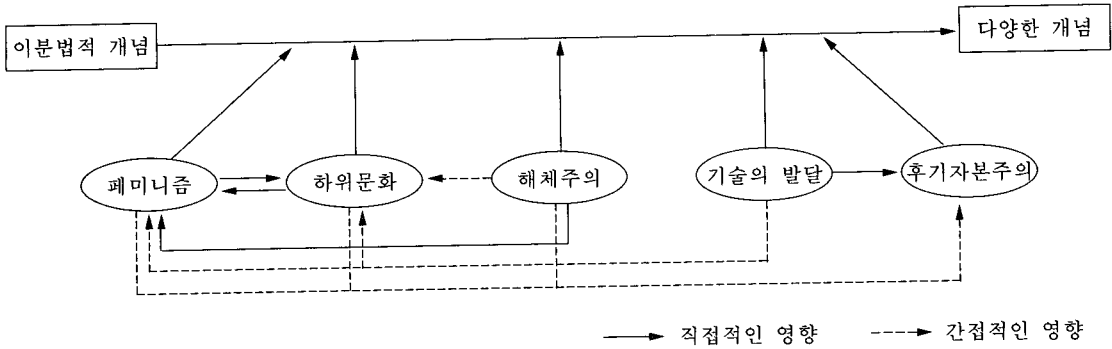
20세기 후반 패션에 나타난 성 개념을 중심으로 60년대 이후의 복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60년대의 복식

1960년대는 젊은이문화가 서서히 패션의 일부로 대두되고 대중예술과 고급예술이 혼합되어 나타나

<표 1> 20세기 후반 패션에 나타난 성 개념 변화 요인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페미니즘	정치적 의미 강화 → (타자로서의 가치주장) 유희론적 페미니즘: 성적 차별의 권력 관계적 측면에 주목 급진적 페미니즘: 본질적인 성적차별 부정		정치적 의미 상실 → (주체성 해방운동 통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새로운 가치추구) ·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본질주의: 차이에 주목, 여성성 대두 해체주의: 차이의 무효화, 남녀 공동의 해방, 양성성 대두]	
하위문화	지배문화에 대한 저항 → 정치적 성향 텀 모즈 히피, 여권운동가 펑크 등		← 기성사회에 대한 비판정신 내포 → 하나의 패션 요소로 등장 해체패션, 스트리트 패션, 동성애자 등	
해체주의	→ 전체 문화의 해체 → · 남: 여라는 대립적 개념에서 남자 속의 여자, 여자 속의 남자라는 내적 차이로의 해체 · 감각적 자극과 즐거움 추구, 변화의 장 제공 · 양쪽 성을 공유하거나 이성의 복식을 착용한 양성적 이미지, 성을 배제한 중성적 이미지의 복식 대두 근거 제공			
테크놀로지의 발달	→ 모호한 성 개념의 당위성 생성 → · 생활진전에 걸친 기계화로 육체적 힘의 차이 감소 · 매스미디어, 문화산업 발달로 각종 하위문화 요소들의 상품화, 대중화 실현 · 90년대 이후 핵 전이를 통한 복제인간의 가능성과 컴퓨터의 보급확대 등으로 성 개념의 모호화 가속화			
후기자본주의 시장경제	→ 다양한 개성 표출 가능성 증대 → · 교환가치가 사용가치를 앞지름으로써 미적 고려, 단순한 재미, 호기심, 새로움 자체에 끌려 정치적 의도 없이도 양성적 요소를 즐길 수 있는 토대 제공 대중소비사회(대량생산과 대량소비) 다품종 소량생산 하위문화요소의 상업화 시작 하위문화요소(양성성)의 상업화 심화			



[그림 1] 성 개념 변화요인 간 구조 분석

기 시작한 시기¹⁰⁾이다. 청소년들이 새로운 소비계층과 문화의 주역으로 등장하면서 기존의 고정관념을 벗어난 새로운 이상에 대한 갈망으로 성의 장벽을 넘고자 하는 시도¹¹⁾가 하위문화와 스트리트 패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64년 스트리트패션에서 영감을 받아 Mary Quant에 의해 제시된 미니스커트는 젊음의 상징일 뿐 아니라 여성들의 자유의지를 표현하는 것¹²⁾으로 받아들여져 이후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또한 히피를 중심으로 남녀를 불문하고 젊은이들 사이에 블루진이 선호되었을 뿐 아니라 디자이너들도 여성복 아이템으로 바지를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60년대는 페미니즘운동이 새로운 전기를 맞기 시작한 때로 페미니스트들은 패션을 이분법적 사고를 근거로 여성신체를 인공적으로 변형시켜 여성을 형성하는 문화적 요구라고 보아 이를 거부하고 남성과 같은 형태의 의상을 착용할 것을 권하였다¹³⁾. 즉 남성화된 스타일을 통해 획득된 남성적 이미지로서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획득하고 남성중심사고에 도전하며 남성의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1851년 중세 이후 처음으로 바지스타일을 여성 의외에 도입하여 블루머 스타일을 제안한 Amelia Bloomer 여사에 의해 최초로 시도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일반화되지는 못하고 운동복으로만 착용되어졌다¹⁴⁾. 이후 1920년대에 성적대상으로서의 존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숙한 여성의 신체를 가능한 한 은폐시키고 활동적인 소년 같은 여성상을 표방하는 가르손느 스타일을 통해 구체화¹⁵⁾되는 듯

하였으나 20년대 후반부터는 다시 여성적인 라인의 옷이 나오기 시작함으로써¹⁶⁾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치고 말았었다¹⁷⁾. 그러나 남녀평등권을 주장하는 자유주의나 사회주의 계열의 페미니즘 운동과 하위문화의 영향으로 6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유니섹스모드는 60년대 복식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 되었고 이후 스포츠웨어와 캐주얼웨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유니섹스 모드의 지대한 공헌자인 Rudi Gernreich은 성적 특성이 극도로 상실된 토폴리스 수영복을 비롯하여 유니섹스 의상을 적극적으로 발표하였는데 그는 근본적인 여성다움, 남성다움은 옷이 아닌 사람 자신에 있으며 의복은 기본적인 형태만 되면 남녀공용으로 충분히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¹⁸⁾. 일반적으로 유니섹스 복식은 여성이 남성적인 스타일을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Tony Barns와 J. Esterel 등에 의해 스커트가 남성복에 일부 도입되기도 하였다¹⁹⁾. 그러나 유니섹스 모드는 남성복의 여성화나 여성복의 남성화와는 구별되는 '무성화의 경향'²⁰⁾으로 동일한 디자인의 의복을 남녀가 공히 함께 입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기에는 기존의 성 개념이 하위문화와 페미니즘운동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단순히 기성사회에 대한 반항이라는 측면이 강했으며 정치적 색채가 짙었다.

2. 70년대의 복식

70년대 초에는 히피운동에 이은 자연회귀의 복고

풍과 여성운동의 증가로 남녀노소 관계없이 심지나 안감이 없는 비구축적인 캐주얼 스타일이 유행하였으나 70년대 후반에는 남성복과 유사한 구조적인 형태의 테일러드 슈트 특히 팬츠 슈트의 매니시룩이 유행하였고 청소년집단에서는 기존사회질서와 미의 개념을 벗어난 핑크패션이 유행하였다³³⁾.

70년대 이후 평상복으로 정착된 팬츠 슈트는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높아지면서 활동하기 편한 실용적 의상으로 채택된 것인데 여성들의 남성복 스타일의 모방은 합리적·이성적·논리적·정신적인 남성적 특질을 남성과 공유하여 남성과 사회적으로 동등한 자격을 획득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복의 남성복화가 오히려 남성 중심적 사고를 더욱 확고히 하여 남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모순을 낳게됨에 따라³⁴⁾ 70년대 후반부터 남녀의 이질성을 강조하는 쪽으로의 움직임도 시작³⁵⁾되어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가차 있는 것으로 정당화하면서 의상에서 여성다움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는 급진적 페미니즘이 표방하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심리적 특성 그리고 생리적 기능이 남성보다 결코 열등하지 않다는 자신감과 관련된 것으로 여성의 신체적 특징부각, 노출, 장식적이고 화려한 디테일과 색상, 문양, 재질 등을 사용한 디자인을 통해 표현되었다³⁶⁾. 이때의 여성적 경향은 과거처럼 남성에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영역에서 자신감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남성적 시각에 집착하지 않고 스스로 즐기고 몸매를 드러내는 섹시한 의복을 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³⁷⁾. 이러한 경향은 남성복에도 영향을 미쳐 러플 장식, 자수, 선명한 색상과 문양, 메이크업, 긴 머리 등 여성적인 특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남성복의 고정관념으로부터의 해방을 제안함으로써 앤드로지너스 룩으로 발전해 가는 토대를 마련했다³⁸⁾고 할 수 있지만 여성들이 남성적 요소를 채택한 것만큼 여성적 요소를 많이 채택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여성의 역할변화가 남성의 역할변화보다 더 급진적이고 역동적이었기 때문³⁹⁾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시기의 성 개념은 보다 모호한 쪽으로 움직여 바지 스타일이 여성복 아이템으로 확고히

자리잡고 의모에서 성 차가 줄어들게 되지만 70년대 말에 이르면 여성적 요소를 강조하는 스타일도 등장하였다. 이는 오랫동안 지속된 남성적 스타일에 대한 반발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섹스의 차가 곧 우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의 사고의 전환과 함께 성 개념의 차도 과거처럼 뚜렷하지 않아 의복을 통해 평등을 주장할 필요가 줄어들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핑크 등의 하위문화에서 성 개념이 모호한 복식을 착용하는 경우는 사회에 대한 저항이라는 측면이 여전히 강하나 페미니즘 등과 관련하여서는 정치적 선택이 많이 줄어든 시기가 할 수 있다.

3. 80년대의 복식

70년대 말경부터 욕구에 기초를 둔 독자적인 생활양식을 지향하게 되면서 생활양식이 다양하게 분화되기 시작했는데 80년대가 되면서 일어난 에너지파동, 여성의 사회진출 증대 등은 패션이 생활실체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생활의 일부분이라는 자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⁴⁰⁾. 이에 따라 의생활도 보다 다양해져 어떤 획일적인 흐름이 있다가 보다는 다양성이 공존하게 되었다. 80년대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이 해체라든가 상호 텍스트성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복식에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로서 페미니즘운동도 양성성(androgyne)을 통해 남녀공동의 인간해방을 추구하는 쪽으로 전개되었다.

양성성은 두 성으로 나뉘기 전의 궁극적인 존재를 의미⁴¹⁾하는데 육체적·성적이기보다 심리적 측면에 초점을 둔 것으로 남향성-여향성을 양극적인 개념이 아니라 연속체의 개념으로 보고 양성성의 2가지 특성을 한사람이 혼합하여 소유할 수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인간의 전체범위의 감정과 역할가능성을 표현하도록 허용한다⁴²⁾. 패션매체들에 양성성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중반 이후로 대부분 관념적인 성보다는 거리의 핑크패션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⁴³⁾. 앤드로지너스 룩은 이성간에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 아이템을 자유롭게 교차 착용함으로써 기존의 성 고정관념을 없애고자 시도하였는데, 유니섹스와는 달리 남성과 여성이 가진 특성을 부정하지 않고 각각의 순수한 아름다움이나

멋을 자유로운 감성으로 교차시켜 전체성을 추구한다. 즉 여성다움 혹은 남성다움을 초월하여 서로 다른 성의 요소를 공유하면서 하나로 통합된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이 중요한 요소로 취급되었다¹³⁾. 성별에 따른 구분이 모호한 앤드로지너스 룩은 복장도착(cross-dressing, transvestism)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는데, 페미니스트들은 이를 두고 성적 동등함을 표현한다기보다는 성별에 대한 구분 자체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미묘한 성적 전략으로 간주하였다¹⁴⁾.

양성성의 복식은 내부로부터의 해체에 의한 상호텍스트성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 80년대 이전의 양성화된 복식이 여성성의 규범에 대한 도전이었다면 80년대의 복식은 남성성의 규범에 대한 도전이라 할 수 있다¹⁵⁾. 경우에 따라서는 디자인발상에서부터 성의 구분이 없어지는 경향도 나타났는데, 특히 80년대 초부터 주목받게 된 일본 디자이너들의 비구축적 디자인에는 성이 존재하지 않고 인간만이 있다고 할 정도였다¹⁶⁾.

또한 80년대는 여성 우주비행사까지 탄생⁴⁾하는 등 여성이 진출하지 않은 분야가 거의 없을 정도로 되어 성역할의 차이는 더욱 줄어들 의복을 통해 평등을 주장할 필요도 더욱 줄어들었고 상황이나 개인적 성향에 따라 다양한 의복을 즐기게 되었다.

4. 90년대의 복식

90년대는 남성과 여성의 성 구분이 아닌 인간자체의 통합적 이미지로서 중성적인 성향을 선호하는데 이는 유니섹스나 앤드로지너스와는 미시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거시적으로는 이 두 개념을 포함하는 듀얼리즘에 근거한다¹⁷⁾. 이에 따라 남성적 라인의 디테일이 첨가된 재킷과 바지에 여성스러운 프릴과 레이스가 있는 블라우스를 매치시키는 방법 등으로 여성미와 남성미를 동시에 만족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났다. 이는 의복이 성을 구별해 주는 도구로 이용됨을 거부하고 의복의 사회적 상징성과 성 정체성의 정의로부터 해체를 시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남녀가 똑같은 의복스타일을 추구하는 60년대 식의 유니섹스를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의복을 공유하되 다른 식으로 입을

으로써¹⁸⁾ 남성은 남성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남아있는 제3의 성을 추구하는 것이다¹⁹⁾. 사실 80년대 이후 패션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앤드로지너스한 쪽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Isaac Mizrahi가 '과거에는 매니쉬한 감각이었지만 지금은 보이쉬한 감각'이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최근의 룩은 보이쉬한 감각이라는 점에서 80년대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²⁰⁾. 이를 두고 문화비평가 Marshall Blonsky는 '양성(sexes)을 서로 더 가깝게 하는 것은 성차(sexual differences)를 없애는 것으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성 개념의 차이가 여전히 문제시되던 80년대와는 달리 전체문화가 해체의 과정에 있다' ²¹⁾고 하였다.

90년대 말에는 여성복에만 사용되던 소재와 색상을 남성복에 사용하거나 남성복 소재나 요소를 여성복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성 차를 줄이고 있는데 이는 남성의 강함에 여성의 부드러움을 더한 것으로 패션에서의 젠더리스가 의미하는 바²²⁾라 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특히 남성복에서 크게 나타났는데 여성복 컬렉션의 작은 부분을 차지할 뿐이었던 남성복이 아이টে이 늘어나면서 독자적인 컬렉션을 형성하고 실루엣도 여성복의 트렌드를 받아들여 보다 부드럽고 색시해졌다. 블라우스 복지에 마오 칼라 또는 윙 칼라를 사용하거나 노출을 통하여 미묘한 색시함을 표현하는 방법 등으로 내면에 자연스러운 남성적인 강함을 감춤으로서 여성적인 부드러움이 더해진 젠더리스 룩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²³⁾.

흔히 젠더리스는 성별의 구분이 혼미해진 세기말적 문화기류라고 말해지는데 아이러니 하게도 페미니스트 이론가인 Shulamith Firestone이 '페미니즘은 정치적 운동일 뿐 아니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혁명의 두 번째 파도'라고 주장한 1970년 이후 출생자들에게 있어 성 차는 결코 분명한 것이 아니다²⁴⁾. 사내 같은 포즈로 컴퓨터통신을 하며, 남자친구를 위해 프릴장식이 있는 옷을 입고, 짧은 머리를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든 상관 없는 여성에게 있어 성 차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누리는 것은 미적 개념일 뿐 정치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여성해방운동에 저항한다²⁵⁾.

〈표 2〉 성 개념과 관련한 20세기 후반 패션의 변화양상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여성성의 규범에 대한 도전		남성성의 규범에 대한 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이문화 대두 (미니, 블루진 등) · 페미니즘과 하위문화 영향으로 유니섹스 모드 등장 (남성복을 근간으로 하여 중성적 이미지 추구, 이성간에 동일 디자인 공유, 기존의 가치체계와 이분법적 개념을 해체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의미 내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지 여성평상복으로 정착 · 구조적인 테일러드 슈트 · 비구축적인 캐주얼 스타일 · 핑크패션 · 급진적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여성스러움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체패션 등장 · 80년대 중반 이후 다양성의 공존 · 매니쉬감각(여성복) · 앤드로지너스 룩 등장 (양성간에 구체적 아이템 상호교환, 복장도착과 유사한 특성 가짐, 정치적 의미의 퇴색, 자본주의 경제논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성향과 취향에 따른 의생활 · 보이쉬감각(여성복) · 젠더리스 룩 등장 (같은 의복을 공유하되 다른 식으로 입음으로써 제3의 성 추구, 성의 상호이미지 혼합을 통해 자유로운 개성 추구, 남성복과 여성복 고유의 특성 유지, 자본주의 경제논리 지배 강화)

그들이 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혼돈과 모호함으로 무엇이 남성다움이고 여성다움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와 함께 과거에는 타인들을 위해 옷을 입었다면 지금은 개인주의가 성행되면서 다른 사람들의 흥미와는 무관하게 자기만족적인 측면에서 옷을 입고 있다. 문제는 그 의복이 자신의 취향과 맞는가 하는 것으로 자신의 취향과 맞기만 하다면 기분과 상황에 따라 중성적인 혹은 양성적인 것은 물론 아주 섹시한 여성적 스타일에서부터 하드한 남성적 스타일까지 모두를 소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상의 성 개념과 관련한 20세기 후반 패션의 변화양상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IV. 결 론

성 개념이란 타인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보느냐 하는 관점일 뿐 아니라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은 분명히 구분되는 것으로 치부하는 기존의 성 고정관념은 20세기 들어 특히 60년대 이후로 성역할이나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여성해방운동, 하위문화, 해체주의, 테크놀로지의 발달, 후기자본주의 시장경제논리 등으로 인해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성역할 차이가 줄어들수록 여성들은 남성적인 요

소를, 남성들은 여성적인 요소를 받아들여 유사한 외모를 만들어 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동일한 의복을 동일한 방식으로 입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게다가 무엇이 남성적이고 여성적이나 하는 개념 자체도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남성복 요소를 채택한 여성패션이라도 시대에 따라 그 의미는 사뭇 다른데 남성과의 성역할 차이가 줄어들수록 역설의 효과도 줄어 60~70년대와는 달리 80~90년대에 있어 팬츠는 남성과의 평등을 주장하기 위한 것도 여성의 사회활동을 과시하기 위한 것도 아닌 단지 취향을 나타낼 뿐이다. 특히 90년대는 여성적이다 남성적이다 하는 것 자체가 그리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다.

남녀간에 유사한 외모를 추구하는 스타일들에 담긴 의미를 시대별로 살펴보면, 우선 성역할 차이가 분명하던 60년대의 유니섹스 모드는 중성적 이미지로서 똑같은 디자인을 남녀가 같이 입음으로서 기존의 가치체계와 이분법적 개념을 해체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의미가 강하게 담긴 것이었다. 70년대는 하위문화에서는 사회에 대한 저항이라는 의미가 여전하였으나 성역할 차이가 줄어 정치적 색채는 약해졌고 오히려 여성성을 강조하는 디자인도 많이 등장하였다. 80년대의 앤드로지너스 룩은 양성간에 구체적인 아이템을 상호교환해서 여성적 이미지와 남성적 이미지를 하나의 의복 안에 포함시키고자 시도하였는데 성역할 차이가 더욱 줄어들어 따라 정치적 의미도 상당히 퇴색되어 유니섹스와는 외적

표현방식 뿐 아니라 내적 의미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이때부터는 오히려 자본주의 경제논리에 지배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90년대 등장한 젠더리스 룩은 딱딱한 남성복에 여성복의 부드러운 요소를 가미하거나 여성복에 남성복의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성 차를 없애려는 시도으로써 성의 상호이미지의 혼합을 통해 자유로운 개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앤드로지너스 룩과 공통점을 지니지만 개성과 기분에 따라 자기자신을 위해 치장할 뿐 더 이상 정치적 의미는 없다는 점에서 차이를 드러낸다. 이들 스타일은 의복에 양성의 개념을 도입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유니섹스에서는 여성복의 남성복화가 주로 이루어졌다면 앤드로지너스에서는 남성복의 여성복화가 더 크게 부각되고 있고 젠더리스에서는 앤드로지너스 만큼 강렬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여성적인 취향이 강하게 대두되면서 남성복과 여성복 고유의 특성도 잃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도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는데 이는 시대에 따라 성 개념이 변화함으로써 초래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즉 60년대는 성역할 차이와 함께 성 고정관념이 남아있음으로서 성 개념도 양분된 개념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였으나 이후 성역할 차이가 급격히 줄어들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조류로 인해 성 개념을 이분법적으로 인식하는 대신 남성성과 여성성을 양극으로 하는 연속체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인식하게 되었고 90년대 들어서는 개인의 성향 또는 취향이라는 관점에서 성 개념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남성성이 높은 사람은 여성성은 낮을 것임을 상정하는 연속체의 개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성성이 높다하더라도 여성성은 높을 수도, 보통일 수도, 낮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성적 특질과 남성적 특질 모두를 거의 소유하지 않은 중립적인 경우³⁰⁾까지 포함하여 성 개념과 관련하여 보다 다양한 개념을 인정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사실 생물학적 성은 인간이 어떻게 사고하는가와 는 무관하게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반면 성 개념은 인간이 생물학적 성에 부여하는 사회적 의미이다.

따라서 성 개념을 사회적 범주 중 하나라고 치부한다면 성 개념의 수는 유한한 것이지만 의미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람들이 생물학적 성에 부여하는 의미만큼 다양한 수의 성 개념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개인이 가지는 남성성 또는 여성성의 정도는 그 개인의 성향을 반영하는 것일 뿐 생물학적인 의미에서의 성과는 무관해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재는 개인의 자유로운 개성에 따라 남녀가 같은 의복을 착용하여 성을 초월한 새로운 성을 나타내거나 뚜렷이 구별되는 남녀 복식의 아이템과 메이크업으로 남성은 여성적인 것을, 여성은 남성적인 것을 융합시켜 이미지 변화를 추구하기도 하고, 동시에 극히 여성적이거나 남성적인 옷 등 다양한 스타일의 복식을 볼 수 있다. 비록 실생활에서는 성 차별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패션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젠더리스의 시대가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21세기에도 지속되어 앞으로는 의복에서 성 차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 질지도 모른다.

참 고 문 헌

- 1) Koch, K. E. & Dickey, L. E.(1988). The Feminist in the Workplace: Applications to a Contextual Study of Dress,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7(1), 46-54.
- 2) 유송옥 · 이은영 · 황선진(1996). 복식문화, 교문사.
- 3) Hamilton, J. A. & Hamilton, J. W.(1989). Dress as a Reflection and Sustainer of Social Reality: A Cross-Cultural Perspective,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7(2), 16-22.
- 4) Lennon, S. J.(1990). Clothing and Changing Sex Roles: Comparison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8(3), 245-254.
- 5) 고애란 · 남미우(1998). 성인남성의 성적지향에 따른 의복행동과 심리적 특성의 관련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4), 460-468.
- 6) Myra Jehlen(1992). Gender,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정정호 · 이소영 공편, 한신문화사.

- 7) Jane Flax(1987), *Postmodernism and Gender Relations in Feminist Theory*,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만남」, 이창순·정진성 편역, 1997, 한울 아카데미.
- 8) 강혜원(1995). *의상사회심리학*, 교문사.
- 9) 김주영·양숙희(1998). 현대 복식에 나타난 내부로부터의 해체 현상(제2보) —1980년대부터 199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2(1), 3—17.
- 10) 정현숙·양숙희(1997). 20세기 후반 패션에 표현된 포스트모더니즘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3), 502—515.
- 11) 정현숙·정홍숙(1997). 포스트모던 패션에 표현된 페미니즘 연구, *복식*, 35호, 231—252.
- 12) 손미희·임영자(1997). 페미니즘이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복식*, 32호, 261—282.
- 13) 김이은·조규화(1996). 복식의 Bisexuality에 관한 연구—196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0(5), 801—816.
- 14) 강정화(1993). 현대패션에 표현된 페미니즘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15) 박명희(1991). 1980년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숙대 박사논문*.
- 16) Kaiser, S., Nagasawa, R., & Hutton, S.(1995). Construction of an SI theory of fashion. Part I : Ambivalence and change.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13(3), 172—183.
- 17) 이광래(1989). 해체란 무엇인가, *교보문고*, 김주영·양숙희(1998)로부터 재인용.
- 18) 김지연·전혜정(1997).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양식 연구 —건축과 복식의 비교—, *복식*, 32호, 293—312.
- 19) 이민선(1993).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에 관한 사적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 20) Maggie Humm(1995). *페미니즘 이론 사전*, 심정순·염경숙(역), 삼신각.
- 21) 월간미술,(1994). 8월 p 172, 김주영·양숙희 (1998)로부터 재인용.
- 22) 노정심(1994). *아방가르드 패션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 23) 김창남(1995). *대중문화와 문화실천*, 도서출판 한울.
- 24) Rudd, A. N. & Tedrick, L. S.(1994). Male appearance aesthetics: Evidence to target a homosexual market, in ITAA Special Publication No. 7, 200—211, *고애란·남미우(1998)에서 재인용*.
- 25) Lee Crystal,(1998). *Genderless wave in Menswear. Bazaar* (February—March).
- 26) *AgBiotech News & Information(ANI)*, Aug, 1997, *The Commercial Potential for Mammalian Cloning*.
- 27) *AgBiotech News & Information(ANI)*, March, 1998, *13 Euro States Ban Human Cloning*.
- 28) *VOGUE(1996)*, Canada, MAY, *Gender Flap*, 114—116.
- 29) 이미숙·조규화(1997). 가브리엘 샤넬의 모더니즘, *한국패션비즈니스 학회지*, 1(3), 1—18.
- 30) Davis Fred(1992). *Fashion, Culture and Identity*, Chicaco: The University of Chicaco Press.
- 31) Hebdige, D.(1984), *Subculture*, London N.Y.: Methuen. 김창남(1995)에서 재인용.
- 32) Key Deaux(1976), *The Behavior of Women and Men*, 이혜성 역(1986), *이화문고*.